

고대 Greece 교육의 전통에 대한 연구

양진권*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그리스 사회의 문화와 교육
2. 그리스 교육의 전개와 내용

III.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I. 서론

현대 서양 교육의 역사를 이해하고 교육 제도와 방법 및 사상이 어떻게 변천 발달되어 왔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서양교육의 원류인 그리스 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본론

1. 그리스 사회의 문화와 교육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1-1. 그리스 사회의 문화

서양문화의 근원과 원형은 고대 그리스(Greece)에서 발견된다. 고대 이 전통에서 비롯된 서양문화의 전통을 이른바 헬레니즘(Hellenism)이라고 하는데 헤브라이즘(Hebraism)과 함께 유럽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한 축이다. 헬레니즘은 B.C.6~4세기에 그리스의 도시국가(polis)적 체제에서 창조되었는데 오늘의 철학·과학·예술·정치조직 등을 비롯한 모든 영역은 이 전통에서 기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집트, 페르시아 등 동방에서 발달된 문화가 그리스 민족에게 받아들여져서 비로소 세련되고 심화되어 그 후 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는 수백 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개개가 독립된 국가적 성격을 구비하여 알렉산더(Alexander III) 대왕에 의하여 헬레니즘 세계로 통합될 때까지 통일국가를 형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그리스 반도의 지리적 요인과 더불어 그리스인들의 강렬한 개성 탓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동일 조상인 Hellen의 후예로서 자신들을 Helleness라 불렀으며 그들의 거주 공간을 Hellas라 하였고 타민족은 Barbaroi라 하여 천시하였다. 비록 많은 도시국가들이 분립, 공존하였으나 그들의 우월감과 시민의식은 혈연, 종교, 문화의 공통성에 연유한 동족의식과 공동신앙을 바탕으로 Hellene 민족 전체를 지배하는 동포감과 단결의식으로 발전되었다.

이와 같은 민족의식이 대외적으로 가장 잘 반영된 것이 그리스 도시국가들과 페르시아가 거의 100여 년에 걸쳐 치른 페르시아 전쟁(B.C.546-448)이었다. 이 전쟁은 당시 절정에 이르러 있었던 페르시아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단결된 투쟁이었으며 결국 Hellen의 공동 민족의식으로 단결된 그리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덕분에 그리스 문화와 정치 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스의 탁월한 문명은 B.C.5세기에 페르시아인들의 침략을 물리친 후 절정에 달했으나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B.C.431-404)을 계기로 상호불신이 조장되고, 또한 그리스 여러 도시에 나타난 빈부의 계층분열과 더불어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함으로써 쇠퇴하기 시작했다. B.C.338년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정복함으로써 그리스는 독립을 잃게 되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문명을 거대한 마케도니아 제국 전역에 전파함으로써 불멸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대 그리스는 서구문명의 산실이었다. 어떠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 업적은 놀라운 것이며 예술 및 과학에서 남긴 유산은 막대하다. 그리스인들의 자유주의 정신과 개인주의 사상은 고대사회 체제아래서도 민주정치를 크게 발전시켰고 합리주의 정신은 자연을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자연철학을 낳았으며 인간중심 사상은 학문과 예술에서 훌륭하게 표현되었다. 그리스 문화의 근본이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¹⁾

1) P. Monroe, A Text-Book on the History of Education, Macmillian Co, NewYork, 1999, pp. 19~20.

1) 자유주의

오리엔트 여러 나라의 민중들은 강대한 왕권 아래 노예의 상태였다. 본래 자유로운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공동체가 권력에 의하여 고정됨으로써 자연적인 발전이 저지되었다. 그러나 시민이 주체적으로 그 사회의 운명에 관여할 수 있었던 도시국가(polis)에서는 설사 그 시민권이 제한되고 자유와 평등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자유롭고 자주적인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2) 주지주의

그리스인은 자연계, 인간계를 대상으로 뛰어난 관찰을 하였고 그 관찰의 결과를 비판하고 그것을 이론화하여 후세에 전했다. 그들이야말로 지식을 지식으로서 사랑한 민족이라 할 수 있다.

3) 인간주의

자유로운 정신은 초월적인 힘 뒤에서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서 인간세계를 그대로 이해하는 일을 한다. 그리스에서는 신조차도 인간적이었다. 올림포스산 위에 산다고 믿어진 희랍신화의 세계는 연애, 질주 투쟁에 가득 찼고 인간세계 그대로였다.

1-2. 교육발전의 시대적 구분

그리스 교육의 시대구분은 보통 기원전 5세기 중엽을 경계²⁾로 하는 이른바 페리클레스 시대(the periclean age)를 전후하여 **古그리스시대(the old greek-period)**와 **新그리스시대 (the new greek period)**로 나눈다. 전자는 다시 호메로스 시대(the homeric age)와 유사시대(the historic period)로 나누고 후자는 과도시대(제1기)와 세계주의 시대(제2기)로 나눈다. 그러므로 그리스 교육은 크게 4 시대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호메로스 시대는 전설의 시대이다. 그리스군 사령관 아가멤논에게 무시당한 아킬레우스의 분노와 그 때문에 트로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불운한 결과를 그린 일리아드(Iliad)와 전후(戰後) 귀국 도상에서 오디세우스의 표류 모험을 다룬 오디세이(Odyssey) 등 2편의 유명한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이 시대의 주된 교육내용이었다. 이 서사시는 고전시대 전반에 걸쳐 그리스의 교육과 문화의 토대가 되었고,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널리 퍼질 때까지 사실상 인문교육의 뼈대를 이루었다.³⁾ 호메로스 시대를 이은 유사시대는 스파르타와 초기 아테네의 두 도시국가의 교육을 포함한다. 이 시대에 있어서는 교육의 개인적인 면보다도 사회적인 면에 중점을 둔 이른바 그리스민족의 사회적 전통에 의한 교육이 행해지던 시대이다.

2) P. Monroe, op.cit. pp.61~62

3) E.H. Wilds, Foundation of Modern Education, E. M. 921, Farrar and Rinehart Washington D.C. 1988, p.82.

신 그리스시대의 제1기는 교육, 종교 및 도덕상의 과도기였다. 이 때문에 과도시대(the transitional period)라고도 한다. 이 시대에는 소피스트(sophists)의 이상과 교육방법에 의해 새로운 교육실천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위대한 사상가들이 배출되었다. 신 그리스시대의 제2기는 세계주의 시대다. 이 시대는 마케도니아의 승리로부터 그리스 문화가 로마생활에 융합되는 시대까지를 걸치게 된다. 즉 그리스민족은 조국을 상실함으로써 그들의 지적 생활은 세계주의가 되어 헬레니즘의 찬란한 꽃을 피게 하였다. 교육은 그리스 본래의 모습을 잃어 국가주의 교육 대신 개인주의 교육이 되고 종래의 실천적 교육이 주지주의 교육으로 변했던 시대이다.

2 그리스 교육의 전개와 내용

2-1 고전시대의 교육

1) 스파르타 교육

도리아(Doria)인에 의하여 건국된 스파르타(Sparta)는 수적으로 우세한 선주민을 半자유민화(periocoi) 하거나 노예화(helotai)하는 과정에서 군국주의적 정치를 펼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교육도 한마디로 군국주의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파르타의 시정방침과 교육목적 및 방법을 가장 명료하게 규정하고있는 것이 바로 리쿠르고스(Lycurgus) 법전으로서 스파르타 교육의 기초를 확립한 법이다. 개인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 우월성을 인정하였던 스파르타 교육⁴⁾(state control in spartan education)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스파르타 교육의 목적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이상적인 군인으로서 필요한 신체적 완성과 완전한 복종의 습관을 기르는데 두었다. 힘, 용기, 인내, 기교(cunning), 애국심 및 군사적 능률(military efficiency)을 개발시키는 그것이 스파르타의 선량한 공민의 이상이였기 때문이다.⁵⁾ E.W.Knight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에 대한 군사적 봉사를 위해 시민을 훈련하는 스파르타의 교육목적은 시민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상에서 나온 것이다.⁶⁾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졌다.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먼저 렉제(lechse)라는 국립검사장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에서 합격된 아기는 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책임 아래 가정에서 길러졌다. 이 시기를 “어머니의 아들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병약자나

4) R.F.Butts, *A Cultural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McGraw Hill Book Co, NewYork, 1997, p.33.

5) E.H.Wilds, *op.cit*, p.37.

6) E.W.Knight, *Twenty Centuries of Education*, Ginn and Co. Boston, 1980, p.51~52.

불구자는 테이게투스(taygetus)산에 있는 아포테타(apotheta)라는 깊은 동굴 속에 버리게 된다.

7세가 되면 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나라의 아들인 바 국가의 공동교육장에 입소한다. 이곳에서는 국가에서 임명된 교육감독관(paidanomos) 밑에서 엄격한 군대적인 공동훈련을 받는다. 18세에서 20세까지는 본격적인 군사교육을 받아 20세가 되면 정식으로 군대에 편입 된다. 이때부터 30세가 되는 10년 동안은 현역군으로써 실전에 참가하게 된다. 30세에 이르러 무인으로서의 교육을 마치고 성인으로서 시민권을 얻고 또 결혼이 허락된다. 그러나 튼튼한 아이의 출생은 국가의 목적이므로 결혼도 우생학적인 면에서 국가가 감독하였다. 이와 같이 7세로부터 30세까지의 군대식 교육의 시기를 “나라의 아들 시대”라 한다.

스파르타의 교육내용은 체육과 음악이었다. 신체적 도야수단으로서 체육이 중시되었고 정신적 도야수단으로서 음악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지적도야는 생활에 필요한 것에만 한정되어 리쿠르고스 법전의 암기, 호메로스 시의 암송 등에 그쳤다. 건강, 용기, 극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은 달리기, 땀 뛰기, 원판던지기, 씨름, 창던지기 등 5예기(五藝技)를 비롯하여 칼싸움, 승마, 수영 및 수렵 등이 과해졌다. 화예가 발달함에 따라 정신적 도야수단으로서 음악 이외의 문법, 수사(修辭), 수학, 천문학 등을 과하는 한편 무도의 노래와 진군의 노래를 군사훈련과 함께 과하였다.

이와 같이 스파르타 교육의 내용은 전적으로 신체적 도덕적 훈련으로서 지적, 미적 요소는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스파르타 교육의 실체는 비단 남자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스파르타에 있어서의 여자아이는 7세까지 남자와 더불어 가정에서 양육되다가 그 후에는 일정한 인원수에 따라 몇 개의 반(packs) 또는 조(troops)로 편성되어 일정한 여자 교육을 받는다. 여기에서의 반 또는 조라는 것은 여자들로 하여금 국가를 위하여 튼튼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의 소유자로 되게 하는 하나의 조직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반을 통하여 육아법과 노예를 다루는 훈련도 과하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파르타 및 여자들은 건강한 병사를 보급하는 기계(maching)라는 면에서 여자의 지위는 비교적 높았다.⁷⁾ 이와 같이 스파르타의 여자 교육은 한 마디로 말해서 건강하고 용감한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하여 국가에 바치는 것을 최대의 의무로 하는 것이었다. 특히 스파르타의 부인들이 전쟁에 출정하는 아들에게 주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여자 교육의 본질을 알아 볼 수 있다. 「방패를 가지고 돌아 오라, 그렇지 않으면 방패 위에 얹혀서 돌아 오라.」(return with your shield or on it)⁸⁾

7) R.F. Butts, op. cit, p. 34.

8) H.G. Good, A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The Macmillan Co, New York, 1980, p. 21.

2) 아테네 교육

이오니아(Ionia)인에 의하여 건국된 아테네(Athens)는 일찍부터 해상활동에 의한 자유로운 개성 신장과 전문 확대에 따른 주지주의 성향이 합리적 인문주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생성시켰다. 따라서 아테네 교육은 그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걸쳐 스파르타와는 서로 다른 점이 많았다.

아테네 교육의 기초는 BC 6,7세기경의 솔론(Solon) 헌법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이 법에 의해 아테네 교육은 스파르타와 같이 전폭적인 국가적 통제가 아니라, 사적 및 국가적 통제의 아테네 교육⁹⁾(private and state control in Athens)의 모습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아테네 교육의 목적도 스파르타와는 달리 청년으로 하여금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신체적, 군사적, 지적 그리고 미적 인데 기본을 두어 원만하고 균형 잡힌 이른바 조화로운 인간 즉 선미(善美)한 인간(kalokagathos)을 기르는데 있었다. 자녀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두었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귀중히 여겨졌다. 가정교육은 육체 단련을 주로 하면서 이외에 신화나 역사를 웃어른이나 부모로부터 들음으로써 독립정신을 길렀다. 6세까지 가정교육이 끝나고 7세가 되면 취학을 했는데 취학의 시기는 7세부터 시작하지만 취학기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7세가 되면 이른바 교복(敎僕, paidagogos, 가정교사라고 볼 수 있음)이라고 하는 노예에 이끌리어 학교에 간다. 오늘날의 교육학(pedagogik) 용어는 이 말에서 나온 것이다. 학교에는 팔레스트라(palestra)라고 하는 공공의 체조학교와 다이다스칼레움(didascaleum)이라고 하는 사립의 음악학교(音樂學校)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오전에는 체조학교에서 달리기, 창던지기, 씨름, 높이뛰기, 원판 던지기 등의 오종경기(五種競技, the pentathlum)와 또 다른 신체적 훈련을 위한 체육과목을 배우고, 오후에는 음악학교에 가서 노래 부르기 및 피리 부는 방법 등의 음악과목과 간단한 문법 독(讀), 서(書), 산(算) 등을 배웠다.¹⁰⁾ 이 시기에 아테네에는 문자교사(the teacher of letters grammatist), 음악교사(the teacher of music, cltharist) 및 체조교사(the teacher of gymnastics, paedotribe) 등 세 가지 종류의 교사가 있었다.

아테네의 학교교육에서 체조와 음악 등을 중시하는 것은 스파르타의 교육과 그 정신에 있어서 거의 같다. 다만 음악과 체조과목 이외에 기타 과목을 과하고 있다는 것이 스파르타의 교육과 다르다. 16세에 이르러 비로소 교복의 보호에서 벗어나 자유스럽게 성인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지적훈련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아테네 교외에 있는 김나지아(gymnasia)라고 하는 공립체육관에서 17세까지의 2년간보다 높은 수준의 신체적 단련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소년들의 신체적 단련을 위해서는 공립 체육관에서, 그리고 지적계발을 위한 훈련은 소피스트를 찾아 교육받게 된다. 당

9) R.F. Butts, op.cit, p.37.

10) F.P. Graves, A Student's History of Education, The Macmillian Co. NewYork 2000, P.31.

시 아테네에는 공공의 경비로 운영되는 공립체육관(the public gymnasium)이 셋이 있었다. 즉 아카데미(the academy), 리슘(the Lyceum) 및 시노자르게스(the cynosarges)가 그것이다.

아카데미는 아테네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귀족적인 요소가 다분하며, 리슘은 페리클레스(Pericles)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시노자르게스는 완전한 시민권(full right of citizenship)을 갖지 못한 소시민(metics) 및 상인들에게 환영받았다. 그리하여 각 체육관은 김나지아크(gymnasiach)라 하는 국가관리가 관리하였다.¹¹⁾

18세에 이르면 자유민으로서 에페베(ephebe)라는 군대식 조합에 들어가게 된다. 이 조합에 들어갈 때는 아테네 시민이 모이는 공식석상에서 충성을 서약하는 이른바 에페베 선서(ephebe cath)를 하고 20세까지 군대식으로 군사교육을 받는다. 20세까지의 교육을 마치면 비로소 아테네 시민의 자격인 시민권을 얻어 정치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으며 또 자유스러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한편 아테네에 있어서의 여자 교육의 목적은 가정을 원만히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현모양처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상에 입각하여 아테네에 있어서는 여자에게 있어서의 학문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았다. 즉 여자는 다만 가정에서 가사, 재봉 등의 학습에서 끝나고 지적교육을 무시했다. 지적교육은 오히려 여자의 정숙함과 덕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겨 이를 적극 피하게 했다. 이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여자를 어릴 때부터 안방에서 생활하게 한 탓으로 체격에 있어서는 Sparta 여성의 그것에 비할 바가 못되었다.

2-2. 세계주의시대(Hellenism) 교육

헬레니즘(Hellenism)이란 그리스 고유의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하여 이루어진 세계주의적인 예술·사상·정신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세계주의화한 그리스 문화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세계주의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신 그리스시대의 제2기에 속하는 시대이다. B.C.338년 아테네 및 테베(Thebe) 연합군이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에게 케로네아의 싸움에서 패배한 시기를 기점으로 과도시대가 끝나고 바야흐로 세계주의 시대가 시작된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그리스는 국가로서의 자립은 상실하지만 오히려 그 문화는 당시의 세계에 전파되고 세계화되었다. 여기에 그리스의 지적 생활은 세계주의가 되고 그 자체의 뚜렷한 특질은 갖지 않게 되었다. 그리스 민족은 조국을 상실함으로써 세계시민이 되자 교육도 그 본래의 특질을 잃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주지주의로 변질하고 말았다. 세계주의 교육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²⁾

11) R.F. Butts, op. cit., p.37.

12) 大柴 衛, 歐美教育史概説, 理想社, pp.29.

1) 교육내용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결과 그리스 문화는 전 세계에 전파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리스는 세계를 문화적으로 정복하게 된다. 대왕의 사후 1세기에 걸쳐 그리스의 풍속, 습관이 동방에 침투된다. 이렇게 그리스 문화가 세계를 풍미함에 따라 그리스 문화 자체도 변질하여 자체의 특색을 잃고 보편성을 띠어 국민문화에서 세계문화로 옮겨갔다. 당시의 그리스인은 국가의 독립보다 세계를 국가로서 생각하여 세계의 시민으로서 자기 한 몸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 개인적 풍조에 응하여 교육의 모습도 변하였다. 초등교육에 있어서 음악, 체육의 중요성을 잃고 문자교육이 성행했고, 중등교육에서도 역시 문법가(grammaricus)가 교사로서 인기를 얻고 음악도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고 체육은 직업전수의 독무대가 되어 학교에서는 지육(知育)에만 치우쳐 문법가에 의해 전적으로 문법, 수사학만 가르쳐졌다.

2) 고등교육기관

수사학교, 철학학교가 발전하여 대학이 되었는데 아테네 대학과 알렉산드리아 대학이 유명하였다. 아테네 대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제논 등이 각각 설립한 학교가 합병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테네 청년의 국가적 교육장이었다. 학장은 아테네 원로원에서 임명하였다. 이 대학에는 멀리 해외의 학생들이 몰려왔다. 대학의 과목은 철학, 수사학, 논리학이었고 역대의 로마 황제들은 이 대학을 로마 제국의 학문의 중심이라 보고 많은 보호를 해 왔으나 기독교의 세력이 팽창한 후로는 이 교적이라고 백안시하여 B.C.529년에 투스티니아누스(Tustinianus) 황제에 의해 폐쇄되었다.

알렉산드리아 대학은 아테네 대학을 대신하여 세계의 학문적 중심이 되었다. 이 곳을 학문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알렉산더 대왕의 뜻이 프톨레미스(Ptolemies, B.C.322~30) 일족에 의해서 실현되었다. 박물관, 도서관이 건립되고 그리스, 유대, 이집트, 그리고 동양의 문헌이 수집되어 많은 학자가 국비로 체재하며 연구에 종사하였다. 물리학과 수학 등에서 위대한 연구가 행해져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발견되었고, 유클리드 기하학이 완성되었다. 초기의 기독교의 교부(敎父)들도 여기에서 교육받았다. 알렉산드리아의 빛나는 문화는 역사상에 “알렉산드리아 시대”를 낳았다. 국가, 민족을 초월한 학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 연구생활을 하여 그야말로 세계주의 시대의 학문을 일으킨 것이었다. 애석하게도 기원 640년에 알렉산드리아가 회교도들에 의해서 함락되자 그 빛나는 활약도 종지부를 찍었다. 따라서 도서관 등 많은 문화시설도 모두 파괴되고 말았다.

2-3. 교육사상

그리스의 초기 학문과 교육은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자연철학에서부터 비롯된다. 즉 물을 만물의 본질적 원인으로 규명한 탈레스(Thales, B.C.640-548)에서 시작된 이오니아학파(일명 탈레스학파)는 이후 아낙시만드로스(Anaximandros), 아낙시메네스(Anaximenes),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피타고라스(Pythagoras) 등에 의하여 우주의 본질에 대한 활발한 이론적 전개가 계속되었으며 또한 크세노파네스(Xenophanes)에 의한 엘레아(Elea)학파가 나타나 역시 우주 본질적 근원적 탐구를 위한 노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는 동안 그리스인의 사유는 자연에서부터 학문의 대상이 인간으로 변화를 보이게 되고, 특히 페리클레스 시대를 전후한 그리스 민주정치 전성기는 현실 철학인 수사학, 정치학 등과 관련된 인간학으로 그 성격이 변질되었다. 소피스트는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띠고 나타난 최초의 계몽학파였다. 이후 소피스트가 내용이 없는 궤변에 빠지고 말았으나 그들이 그리스의 사상 전환기의 청년들을 자극하여 학문 연구를 촉진시킨 공적은 컸으며 논리학, 심리학의 발달도 그들에게 힘입은 바 적지 않다. 이들 소피스트에 반대하여 사상을 조정하고 자아를 각성하여 도덕의 공적 표준을 재건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Socrates)였다. 이후 소크라테스를 계승한 플라톤(Platon)은 아카데미를 세워 제자를 양성하는 한편 국가론, 법률편 등을 저술하여 이상적인 국가와 인간상을 모색했으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이르러서는 그리스 학문이 그 절정에 달하게 된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레니즘 세계의 건설은 세계주의를 표방하는 가운데 정치에 무관심하게 된 시민은 세속적 쾌락과 영혼 구제를 기대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도시국가를 초월한 세계주의 사상을 배태하게 된다. 제논(Zenon)을 중심으로 한 스토아(Stoa)학파는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에 대한 충실과 이성을 바탕으로 애정과 욕망의 극복을 주장하며 이것을 자연에의 질서에서 찾으려 하였다. 극단적 이기주의를 표방한 에피쿠르스(Epicurus)는 개인의 행복을 쾌락주의, 원자론적 입장에서 설명하여 현실주의적인 철학사상을 주장하였다.

1) 소피스트

소피스트(Sophists)란 원래 지자(智者) 또는 현자(賢者)라는 말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지식 및 기능을 교수하며 아테네 및 여러 지방을 편력하는 직업적 학자들로 구성된 일군의 교사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개인주의, 주관주의, 주지주의적 경향을 대표하여 웅변 및 수사학 등 여러 가지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가 또는 철학자들을 총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소피스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학자는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B.C.485~415?), 고

르기아스(Gorgias, B.C.440~?), 히피아스(Hippias) 등이다. 그들의 근본사상은 소피스트의 우두머리 격인, 프로타고라스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는「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견해는 인식론상의 회의설이다. 사람의 인식은 일종의 주관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의 주관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유전(流轉)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해 간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구히 변하지 않는 보편 타당한 진리란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개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성립하고 있다. 때문에 주관의 변화에 의해서 지식도 변화하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것은 인간의 주관이라는 입장에 선다.

소피스트의 교육목적은 이러한 그들의 기본사상에 입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즉 소피스트의 교육목적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적응하게끔 준비함은 물론, 나아가 개인의 인성적 향상(advancement)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사용한 그들의 주된 교육내용은 웅변술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문법, 수사학 및 변론과 웅변을 가르쳤다.¹³⁾

당시 이들 소피스트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여러 특수성을 살펴보면, ①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철학에 대하여 회의적 태도를 취했다. ② 인식론에 있어 감각론을 주장하고 보편 타당한 진리의 존재를 인정치 않았다. ③ 계몽적 경향을 가지고 고상한 학리를 탐구하기보다는 입신양명에 필요한 지식 및 웅변술을 교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④ 개인주의, 주관주의의 인생관을 가지고 단체주의, 국가주의에 반대하였다. ⑤ 물질 보수와 일정한 급료를 받고 교육을 직업화하였다.¹⁴⁾

2)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Socrates, B.C.439-399)는 조각가를 아버지로 산파를 어머니로 하여 아테네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날 때는 아테네는 정치적으로 최전성기였으며, 지적으로는 소피스트의 활동에 의하여 지식의 욕구가 대단히 고조되어 있을 무렵이었다. 비록 청년시절에 3번에 걸친 종군생활과 또 공적생활에 종사한 일은 있으나 경제적인 가정형편으로 뜻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오직 자학자습에 의한 여러 가지 사상적 문제에 골몰하였다. 당시 소피스트에 의하여 나쁜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 사회의 사상을 바로 잡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신을 모독하고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소피스트들의 참소를 받아 이단자로 취급, 체포되어 옥고 끝에, 국법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의무임을 강조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제자들의 만류를 물리친 채 독배를 마시니 그의 나이 72세였다.

그는 단 한 권의 저작도 없으나 그의 수제자인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크세노폰(Xenophon, B.C.430~354)의 저서「큐로파이데이아」(Kuropaideia) 및 『소크라테스의 기억』(memorabilia), 그

13) S. Daggan, A Student's Text-book in the history of Education, Appleton-Century-Crofts, Inc. New York, 1998, p.27.

14) 林漢水, 教育思想家, 修文閣, 1956, p.43.

리고 여러 다른 제자들의 저서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 도덕철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man is the measure on all things.)라는 명제에서 그 출발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피스트의 「인간」이 개개인을 의미한데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보편적(universal)인 의미로 이해하였다.¹⁵⁾ 뿐만 아니라 소피스트의 주관주의를 극력 배척하여 지식 및 도덕의 보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소피스트에서 출발하여 소피스트의 사상을 물리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는 지식은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에 지식과 도덕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덕(德)을 쌓자면 덕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덕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인간은 반드시 덕을 행한다. 부덕(不德)은 덕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곳에 생긴다. 따라서 덕과 지는 일치하는 것이다. 즉 "지는 덕"(knowledge is virtue)이라고 하는 지·덕 합일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시장, 공원, 거리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모두가 그의 교육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교육방법은 문답법(對話法)이 주가 되었다. 문답법에는 2종류가 있다. 하나는 반어법(ironic method)이고 다른 하나는 산파법(maieutic method)이다. 반어법이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식의 그릇됨을 즉 스스로의 무지를 깨우쳐 주는 방법이며, 산파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와 같이 그는 「나 자신을 알라」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하고 또 문답을 통해서 지식의 개발을 도모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를 "개발교수(開發敎授), 혹은 계발적(啓發的) 교육방법의 시조" 등으로 불리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당시의 소피스트들을 공격하여 많은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많은 문하생을 배출시켰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제자가 바로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가리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착하고 가장 지혜가 많고 바른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인류 역사상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그의 영구적 및 직접적인 공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¹⁶⁾

- ① 지식은 실제적, 도덕적 또 기능적인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그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으로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 ②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객관적으로는 담화이고 주관적으로는 자기경험의 반성과 분류다.
- ③ 교육은 지식의 부여만이 아니라 사고력의 발전을 그 직접 목적으로 한다.

15) S. Daggan, op.cit, p.32.

16) P.Monroe, op.cit., p.130.

3)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수제자 플라톤(Platon, B.C.427~347)은 아테네의 명문가인 귀족출신이다. 그의 원명은 아리스토클레스(Aristokles)이지만 체육교사가 그의 체격이 훌륭함을 칭찬한 나머지 턱이 넓다는 뜻인 플라톤이라고 명명하였다. 그가 20세 때 소크라테스의 문하에 들어가 스승이 서거할 때까지 8년간 사사하였다. 플라톤의 나이 40일 때, 즉 B.C. 386년에 아테네 근교 아카데모스(Academos) 체육장에 아카데미아(Academia)라는 학교를 세워 82세까지 40년간 일생을 독신으로 오로지 교육사업에 전념하였다.

플라톤의 철학사상의 근원은 유명한 이념론(理念論), 즉 이데아론(Idea)이다. 이데아란 이념, 이성, 관념을 뜻한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물에는 그 사물의 본체 즉, 이념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데아(Idea)라고 이름지었다. 그리하여 이데아는 그 사물의 상주불변(常住不變)의 성질을 지칭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데아 세계와 현상세계(現象世界)와의 이원적 세계관에 입각하고 있다.

이데아 세계는 우리들의 이성의 대상인 초감각적 세계인 상주불변의 세계, 이성의 세계, 이념의 세계를 말하며, 현상세계는 우리들의 감각대상으로서 경험세계인 변화, 유전(流轉)의 세계, 감각의 세계, 생멸(生滅)의 세계를 말한다. 따라서 현상세계인 경험세계의 실체계(實體界)는 모두 이데아의 모방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며 영원 불변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이데아의 실현, 즉 진·선·미의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데아 세계를 실현하는데 두었었다.

그러면 그의 교육의 목적인 이데아의 실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이데아의 실현이란 인간을 도덕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인간을 인도하여 도덕적인 생활으로 이르게 하자면 국가의 일원으로서 유능한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국가를 위하여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는 것, 다시 말해서 "유능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그의 교육의 직접목적이었다. 이것은 그의 법률편에서 「공정하게 국민을 다스리는 방법과 다스림을 받는 방법」¹⁷⁾이라는 말로서 표시하고 있는 그의 사상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플라톤은 이러한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교육의 단계적인 방법으로서의 교육계획을 주장하였다. 그의 교육계획에 의하면 인간의 탄생후의 교육을 5기로 나눈다.¹⁸⁾ 제1기는 도야기로 15세까지의 어린이에게 화예와 체육 및 음악을 가르쳤으며, 제 2기는 20세까지의 체육전수기(體育專修期)로서 주로 체육을 통하여 신체의 단련과 군사훈련을 하였으며, 여기서 성적이 낮으면 제 2기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산에 종사하게 된다. 제3기는 20세부터 30세까지의 과학적 도야기로서 철학의 예비교과를 과하였다. 여기서 역시 성적이 나쁘면 군인계급에 머무르게 된다. 제4기는 30세부터 35세까지의 철학

17) Platon, The Laws, BookI, 643E, Vol. 1, p.65.

18) 文炳滿, 西洋教育史, 載東文化社, 1964, p.29.

적 도야기로서 가장 우수한 자에게 최고의 교육을 부여한다. 학과는 철학과 변증법이 주가 된다. 제5기는 35세부터 50세까지 실천과 실험의 연구가로서 군사와 정치에 참여하여 풍부한 실제 경험을 쌓은 다음 후진의 교육에 종사하게 된다.

한편 그는 『국가론』에서 국가도 개인과 같이 영혼을 갖고 있다고 보아 국가의 조직도 3계급으로 구성한다는 "3단계설"을 주장하였다. 제1계급은 이성(理性)에 해당하는 가장 위 계급인 통치계급이고 격성(激性)에 해당하는 제2계급은 군인계급이며, 욕성(慾性)에 해당하는 제3계급은 서민계급이다. 통치계급에는 이성의 덕이 필요하고, 군인계급에는 용기, 서민계급에는 절제의 덕이 각각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플라톤은 덕의 구조와 국가의 조직 구조를 동일 선상에서 보아 3가지의 덕과 3계급의 조화적인 협조가 이상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국가의 세 계급 중에서 통치 및 군인계급에만 교육이 필요하고, 제3계급인 서민계급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 계급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이 오히려 세 계급의 조화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이상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플라톤의 귀족적 교육사상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상을 갖게 된 원인은 그가 귀족출신이라는 데서 많은 영향을 입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4)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의 넓이와 깊이에 있어 너무나 박학하여 그리스 최대의 철학자로 또 백과(百科)의 시조로 불리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384~322)는 마케도니아 왕의 시의(侍醫)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나이 18세 때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문하여 그 후 20년간 플라톤에게 사사하였다. B.C.342년에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으로부터 초청 받아 당시 13세 알렉산더(Alexander)의 스승이 되어 4년간 그의 교육을 전담하고 하였다. 대왕의 즉위 후 다시 아테네로 돌아온 그는 아테네 교외에 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에 전념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소요학교(逍遙學校, Lyceum)이다. 소요학교라는 말은 마치 산책하는 것처럼 숲 속을 거닐면서 가르쳤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며 후세의 철학사에서 그의 학파를 리습학파니, 또는 소요학파(peripatetic)니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사상은 그의 주저인 정치학(the politics)과 윤리학(the ethics)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설은 스승 플라톤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선다. 그에 의하면 사물의 본질은 개개의 사물에 내재한다는 소위 실체론(實體論)이다. 사물의 본질은 그 사물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물의 본질인 실체는 개물(個物)에서 초월적이지 않고 오히려 내재적이며 개물을 생성시켜 이것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체는 개물의 생성 변화 즉, 운동으로 자기를 실현시킨다. 운동에는 질료(質料)와 형상(形相)의 요소가 있다. 모든 개물에는 이 양면이 존재하여 질료에서 형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운동이다. 전자는 실체가 가능태(可能態)로 있는 것이고, 후자는 현실태(現

實態)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질료와 현상의 관계에 있어서 단계를 형성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에 관한 의견은「정치학」의 제7권 및 8권에서 이를 살필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교육은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았다. 즉 교육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Eudaimoia)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했다.¹⁹⁾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행복은 이성의 합리적 활동 즉, 덕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덕을 통해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²⁰⁾ 이 때문에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유덕(有德)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국민의 교육은 국가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라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플라톤과 같이 국가주의 교육을 주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과 같이 서민계급의 교육을 무시했다. 즉 자유민의 교육만을 인정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순서로서 3단계를 들고 있다. 즉 처음에는 먼저 신체적 발육에 주의하고, 다음에 습관형성의 단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의 도야단계에로 차례차례 진행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7세, 14세, 21세를 심신 발육상의 변화기로 보고 이에 의하여 교육방법을 논하고 있다. 출생 후 7세까지는 가정교육기로서 신체적 발육에 중점을 두며, 7세부터 14세까지는 공공교육기(公共教育期)로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한 습관 및 정서의 훈련을 강조한다. 15세에서 21세까지는 공공교육기의 계속으로서의 시민적 훈련과 이성의 도야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그의 교육의 단계와 교육의 방법을 학교기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²¹⁾

아리스토텔레스는 초등학교(the lower level)에 있어서는 육체적, 도덕적 습관의 형성을 주장하였으며, 중등학교(the secondary level)에 있어서는 체육, 음악, 그림 등을 통하여 정서의 훈련을 강조하고 고등교육(the higher level)에 있어서는 수학, 논리학, 과학 등을 통하여 시민적 훈련과 이성의 계발을 주장하였다.

그리스의 교육사상가로서는 위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외에 수사학교를 세워 일정한 목적과 일정한 작업을 관련시켜 처음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행한 이소크라테스(Isocrates, B.C.393~338), 그리스의 장군이며 철학가요 또 역사가이기도 한 크세노폰(Xenophon, B.C.430~354) 등 몇몇 교육사상가를 들 수 있다. 크세노폰의 교육설은 "큐로파이데이아"(kuropaideia)라는 그의 저서에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비오이파르·알레로이"(Bioipar Alleroi : 통칭 Plutarchus영웅전)의 작가로 알려진 플루타크스(Plutarchus, B.C.46~120)의 교육사상은 『아동교육론』(de liberis educandis)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이 아동교육론은 문예부흥시대의 에라스무스(Erasmus 1466~1536) 및 종교개혁 당시의 멜란히톤(Melanchton, 1497~1560)등의 교육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19) R. Uich,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 American Book Co., New York, 1985, p. 28.

20) E.H. Wilds, op.cit., p.104.

21) E.H. Wilds, op.cit., p.106.

관계로 교육 역사상 빛나는 고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Ⅲ. 결 론

서양교육의 원류는 고대 그리스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된 서양교육의 전통은 유럽교육의 중요한 한 축이다. 특히 그리스의 도시 국가적 체제에서 창조된 인문주의 교육의 전통은 현대 교육의 제반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 고 문 헌

- 文炯滿, 西洋教育史, 載東文化社, 1964.
 林漢永, 教育思想家, 修文閣, 1956.
 大柴 衛, 歐美教育史概說, 理想社, 1977.
 E.H.Wilds, Foundation of Modern Education, E.M. 921, Farrar and Rinehart Washington D.C. 1998.
 E.W.Knight, Twenty Centuries of Education, Ginn and Co., Boston, 1980.
 F.P.Graves, A Student's History of Education, The Macmillian Co., NewYork, 2000.
 H.G.Good. A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The Macmillian Co., NewYork, 1980.
 P. Monroe, A text-Book on the History of Education, Macmillian Co., NewYork, 1999.
 Platon, The Saws, Book1, 643 E.Vol. 1.
 R.F.Butts, Acultural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McGraw Hill Book Co., NewYork, 1997.
 R.Ulich,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 American Book Co., NewYork, 1985.
 S. Duggan, A Student's Text-book in the history of Education, Appleton-Century-Crofts Inc., NewYork, 1998.

<Abstract>**A Study on the Traditions of Ancient Greece Education****Yang, Jin-Geon**

The Historical Overview provides a brief summary of the history of ancient Greece from approximately 1200 B.C., the period when Mycenaean civilization perished, to 323 B.C., the death of Alexander the Great. These limits were chosen to complement the emphasis of the Greek texts included in this version of Perseus, most of which fall between Homer and Aristotle. The epic poems *The Iliad* and *The Odyssey* of Homer were composed in the eighth century B.C., but their stories belong to the much earlier period of the Trojan War, which has often been dated to the years not long after 1200. Whether there ever was an actual Trojan War and, if so, when it took place, are questions still debated, as is the question of how much reliable historical information the Homeric epics may provide on this early period.

The historical overview begins where it does in the hope that users of Perseus will find this background helpful in studying later Greek civilization, namely that of the Greek city-state (polis). The polis began to emerge as a new form of soci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in the eighth century B.C., and the emphasis of the Overview is on the history of the polis, particularly during the fifth century (the so-called Golden Age of Athens, the largest and best documented of Greek city-states). The overview ends where it does because 323 has traditionally been identified as the end of the Classical period in ancient Greek history. After this date the monarchies founded by Alexander's successors tended to overshadow or even dominate the city-states in international politics.

The significance of 323 as a turning point in Greek history is in fact just as problematic on several grounds as is the history of the Trojan War, but at least ending the Overview at this conventional date allows the survey to conclude roughly in the period of the life of the fourth-century philosopher and polymath Aristotle (died 322), who tutored the young Alexander for a while.